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문화적 실천의 간극*

-담양 슬로시티를 사례로-

유 목 화**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느림’의 의미
- III. 담양 슬로시티의 기획과 문화적 실천
- IV. 간극의 발생과 패러다임의 전환
- V. 나가며 : 과제와 전망

국문초록 | 슬로시티가 한국사회에 도입된 지 15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국내 슬로시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슬로시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슬로시티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향후 국내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 도입된 슬로시티의 내실을 꾀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국내 슬로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담양 슬로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3634).

** 柳牧和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mhryu12@naver.com

투고일: 2023. 5. 31. 심사완료일: 2023. 6. 12. 게재확정일: 2023.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4..315>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슬로시티 사업이 어떤 맥락에서 기획되고 실천되는지, 그 과정에서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슬로시티 인증을 위한 평가 요건과 맞물려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둔 담양군의 슬로시티 사업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 결과 어떤 괴리가 나타났는지를 고찰했다.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자체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느림'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 '느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핵심어 | 슬로시티 운동, 슬로푸드,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 느림, 문화적 실천, 잔극, 담양 슬로시티, 슬로시티 사업, 슬로시티 정책, 패러다임

I. 들어가며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슬로시티(Slow City) 운동은 느리게 사는 삶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적 실천이다.¹⁾ 이 운동은 2007년 12월 한국 최초로 전남 4개 지역이 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²⁾ 슬로시티

1) 원래 치타슬로(Cittaslow)라고 불리는 슬로시티 운동은 이탈리아의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에서 파생되었다. 세계적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가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 입점하자 이를 거부하는 운동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브라(Bra),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 오르비에토(Orvieto), 포지타노(Positano)에서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Slow Food)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이탈리아 4개 도시의 시장들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느린 삶'을 실천하는 뜻을 모아 1999년 10월에 슬로시티를 주창했다. <http://cittaslow.co.kr/47> 참조.

2) 슬로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일정 부분 부합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는 담양군 창평면, 신안군 증도면, 완도군 청산면, 장흥군 유치면·장평면이 슬로시티로 처음 인증되었다. 한국의 농어촌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었고, WTO와 FTA 등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그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졌다.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농어촌 관광이 전국적으로 부상하던 때였다. 이 시기에 '슬로시티'는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와 전남 지자체에 '대안관광'과 '농어촌의 차별

인증 이후 이 지역들은 그것의 적극적인 홍보로 매년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는 등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었다.³⁾ 슬로시티 인증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홍보되어⁴⁾ 지자체의 관심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4개 지역이 재인증을 앞두고 한 곳은 보류, 다른 한 곳은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이슈가 주목된다. 하나는 탈락한 지역의 관광산업에 차질이 빚어질 점, 다른 하나는 슬로시티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슬로시티 퇴출은 크든 적든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힐 것”⁵⁾이라는 견해와 “슬로시티 브랜드 의존도가 컸다는 점에서 (탈락한)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⁶⁾이라는 전망이 이를 대변한다. 후자의 경우, “(전남도에서) 슬로시티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⁷⁾는 사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회의에 이어 컨설팅단 회의를 여는 등 슬로시티 진단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⁸⁾는 보도 등이 그 대표적

화된 관광브랜드'로 다가왔다.

- 3) “전남의 슬로시티 4곳을 찾은 관광객수는 지난 한해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07년 25만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43만명, 2009년 63만명, 2010년 117만명 등으로 매년 45% 이상씩 증가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슬로시티, 농촌의 촌스러움과 느낌도 '경쟁력」, 『농민신문』, 2011년 3월 28일.
- 4) 국내 지자체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라는 국제기구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로 당해 지역을 홍보하며 관광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성보현·조록환, 「관광 브랜드 인지, 이미지, 태도 간 영향관계 분석-담양 창평 슬로시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4, 44쪽 참조. 현재 국내 17개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되었고,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된 편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http://cittaslow.co.kr/18>를 참조할 것.
- 5) 「『亞 최초 슬로시티』 첫 퇴출 파장 확산」, 『뉴시스』, 2013년 7월 7일.
- 6) 「슬로시티 보류·탈락' 신안·장흥 어찌나」, 『서울경제』, 2013년 7월 8일.
- 7) 「전남도, 슬로시티 탈락 후속 대책 마련 추진」, 『연합뉴스』, 2013년 7월 9일.

인 보기이다.

요컨대 국내의 슬로시티 도입과 그 이후의 행보는, 슬로시티 운동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천하기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슬로시티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국내에 도입되었음을 의미하며, 관광산업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슬로시티 브랜드를 활용해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에 치중한 결과, ‘방문객의 폭증으로 인한 환경오염’⁹⁾이나 ‘슬로시티와 관련 없는 사업 추진과 영리 추구’¹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남 두 지역의 ‘슬로시티의 보류와 탈락’ 사건이 한국에서 슬로시티 운동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이다.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슬로시티 인증지역에 대해 긴급 점검과 더불어 후속대책을 모색한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남 4개 지역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후 2009년부터 이 지역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따라서 슬로시티 탈락과 보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정부 관계부처의 특성상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둔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용역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을 평가하고, ‘대안관광’에 초점을 둔 향후 추진방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¹¹⁾ 다시 말해, ‘주민의 삶의 질’ 그 자체보다는 지역의 생태와 전통을 산업화한 ‘슬로시티다운 관광자원’의 모색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8) 「‘100억 지원’ 문체부, 슬로시티 진단 나선다」, 『뉴시스』, 2013년 7월 16일.

9) 「『亞』 최초 슬로시티 탈락·보류 배경과 과제」, 『뉴시스』, 2013년 7월 4일.

10) 「장흥, 슬로시티 재인증 탈락... 관광객 유치 타격」, 『세계일보』, 2013년 7월 8일.

11) 한국관광개발원, 「슬로시티관광자원화·생태관광10대모텔 사업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처럼 ‘슬로시티의 탈락과 보류’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지만,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지역의 상황은 그 이후로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 국내 슬로시티 인증 10주년을 맞아 전남 슬로시티 3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슬로시티는 “장소마케팅을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상품판매를 위한 브랜드로 전략”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¹²⁾ 흥미로운 것은 슬로시티로 인증된 전남 지역 중 “그나마 슬로시티라는 브랜드로 움직여지는 곳은 창평뿐”이라고 언급한 점이다.¹³⁾ 다른 지역에 비해 창평의 “전통음식, 역사와 문화, 마을경관 등” 주요자원이 슬로시티에 적합하고, 특산물 판매장인 달팽이가게 등이 잘 운영되기 때문이다.¹⁴⁾ 환언하면, 슬로시티 브랜드를 가장 잘 상품화하는 곳이 담양 창평이며, 본디 슬로시티의 의미와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담양 창평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구호에 불과할 뿐, 슬로시티가 지역개발의 한 전략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는 점이다.¹⁵⁾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를 일면 포착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¹⁶⁾ 다시 말해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느린 삶을 실천하기보다 국내 지자체

12) 김준, 「슬로시티 정책의 성찰과 개선방안」, 광주전남연구원, 2018, 91쪽.

13) 김준, 위의 글, 45쪽.

14) 김준, 위의 글, 44-45쪽.

15) 차윤정은 슬로시티 도입 이후 관광의 맥락에서 ‘느림’이 ‘전통’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상품화되면서 마을의 문화가 재구성되는 일면들을 포착한 바 있다. 차윤정, 「로컬 서사를 통해 본 차이의 가능성-삼지내마을의 슬로시티 인증과 문화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6) 최정기는 한국의 슬로시티가 관광산업에 치중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정기, 「대안적 사회구성과 슬로시티(Slow City)운동 비판-담양군 창평면의 슬로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9. 유목화는 슬로시티 도입 이후 전통경관 조성사업으로 삼지내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농촌체험

에서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해 그 본말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슬로시티 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를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단순히 관광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슬로시티의 철학은 지역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관광산업에 초점을 둔 슬로시티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슬로시티의 철학과 ‘느림’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를 어떻게 기획하고 실천하는지, 또 슬로시티의 인증을 위한 평가 요건과 맞물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 결과 어떤 괴리가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과 동태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 패러다임이 종전과 달리 최근 들어 일부분 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되어 시의성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¹⁷⁾과 ‘느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담양 슬로시티가 어떤 맥락에서 기획되고 실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왜 간극이 발생하는지 천착하려 한다. 나아가 담양 슬로시티의 거점마을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슬로시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제슬로시티연맹과 한국슬로시티본부 홈페이지에서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느림의 의미를 찾아 분석해보겠다. 이후 담양 슬로시티 관련 문헌과 필자의 장기간 현장연구(field work)를 통해 획득한 면접 자료를 종합해 슬로시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

소득사업을 통한 부의 편제와 분배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목화, 「슬로시티의 도입에 따른 농촌사회와 주민들 삶의 변화-담양 창평면 삼지내마을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76집, 비교민속학회, 2022.

17) 본 논문에서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슬로시티의 철학’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제목이나 본문에서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을 붙인 이유는 슬로시티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결과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민속지적으로 생생히 담아낼 것이다.¹⁸⁾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 도입된 슬로시티의 내실화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II.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느림’의 의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운동은 슬로푸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슬로푸드 운동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의 입점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패스트푸드는 소비자가 긴 기다림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패스트푸드를 찾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준화된 조리법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같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곧 단점이 된다. 표준화된 조리법과 그 음식이 현대인의 미각을 획일화하기 때문이다.¹⁹⁾

한편 패스트푸드는 그것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18) 필자는 2016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담양 슬로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어긋나는 슬로시티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 행정당국과 삼지내마을 주민, 삼지내마을과 그 외 창평면 마을 주민, 사무국장과 슬로시티 명인, 슬로시티 명인들 간 대립과 갈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담양 슬로시티 거점마을이 확대되면서 그 마을 이장을 만나 기존의 슬로시티 패러다임이 일부분 변화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2016년 박사후국내연수 과제 선정의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필자의 두 번의 출산으로 인한 공백으로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 덕분에 담양 슬로시티를 장기간 조사하고 느리게 연구할 수 있었다. 배려해주신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 김양수, 「음식문화의 보편화 그리고 슬로푸드 운동」, 『철학과 문화』 제23집, 한국의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11, 142~143쪽 참조.

큰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또는 “성장 호르몬이 투여된 곡물 혹은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고기류 등의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²⁰⁾ 이런 점에서 슬로푸드 운동은 음식의 획일화에 반발하고, 지역 고유의 음식의 맛을 추구한다. 또한 인위적인 조작과 첨가물이 아닌,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슬로푸드 운동은 그 철학을 우리의 삶 전반에 확대할 필요성을 짚 띄우면서 슬로시티 운동으로 발전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에 따르면, 슬로시티는 1999년 당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의 시장이었던 파올로 사투르니니(Paolo Saturnini)의 발상에서 나왔다.²¹⁾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방식을 변화시키고 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바쁜 생활태도를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²²⁾ 또한 ‘느림’은 “불편함이 아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²³⁾

하지만 슬로시티 운동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았다. ‘느림’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당장 편리함을 누리고 싶어 이를 반기지 않은 것이었다.²⁴⁾ 이에 파올로 사투르니니 시장은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했고, 오랜 설득 끝에 그레베 인 키안티는 마침내 2001년 슬로시티로 공식 선언되었다.²⁵⁾ ‘느림’의 의미는 단순히 불편하기만한 것이 아니라 오래갈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 김양수, 위의 논문, 143쪽.

21) 파올로 사투르니니의 아이디어는 이탈리아의 브라(Bra), 오르비에토(Orvieto), 그리고 포지타노(Positano) 시장의 지지를 받았고, 이후 슬로푸드 회장인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의 후원을 받았다. <https://www.cittaslow.org/content/association>

22) 신종목·손대현·장희정, 「슬로우 무브먼트 컨셉 도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17권,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5, 18쪽.

23) 신종목·손대현·장희정, 위의 논문, 19쪽.

24) 손대현·장희정, 『슬로시티에 취하다』, 조선앤북, 2012, 206~207쪽.

25) 신종목·손대현·장희정, 앞의 논문, 19쪽.

설득한 것이다.

산업화 이후 ‘빠름’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필수조건이었지만 ‘느림’은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슬로시티 운동의 배경은 현대인들이 ‘빠름’을 추구하면서 잃어버린 가치, 즉 느림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느림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주목한 데 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의 ‘느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²⁶⁾

- ① 느리게 산다는 것은 천천히 서두르는 것을 의미한다(Living slow means being slowly hasty) : 라틴어 “festina lent”(급할수록 돌아가라)
- ② 더 나은 삶을 위한 천천히(Slow for a better life)

①과 ② 모두 느림은 ‘속도’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①에서 ‘느리게 산다는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천천히 서두르다’는 다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틴어 “festina lent”에서 알 수 있듯이 서두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결국 ②와 같이 ‘느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천천히’에 초점을 둔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 등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 점에서 슬로시티 운동은 ‘느림’을 통해 ‘빠름’을 강조함으로써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를 회복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슬로시티의 철학에 대한 설명도 ‘느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준다. ‘느림’은 ‘속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느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다음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https://www.cittaslow.org/content/philosophy>

우리가 지향하는 슬로시티의 철학은 성장에서 성숙, 삶의 양에서 질, 속도에서 깊이와 품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슬로시티라고 해서 무조건 옛것을 지키면서 개발이나 현대문명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슬로시티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역사 문화를 잘 가꾸면서 후세에도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하여 좋은 삶과 좋은 세상으로 덕을 세우는 건덕정신建德精神입니다. 그리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고양하여 튼튼한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²⁷⁾

이처럼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느림’은 ‘성숙’, ‘질’, ‘깊이와 품위’를 의미한다. 빠른 속도를 앞세운 양적 성장은 성숙과 질, 깊이와 품위를 놓치기 쉽다. 따라서 느리게 사는 삶은 결국 그것을 갖추기 위한 ‘방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슬로시티는 ‘느림’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도시이다. 슬로시티에서 ‘느림’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슬로시티의 철학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좋은 삶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곧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느림은 ‘전통과 역사’, ‘지역 고유의 자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이 슬로푸드 운동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슬로푸드 운동은 획일화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음식’의 보존을 추구한다. 따라서 슬로시티에서 ‘느림’은 지역 고유의 음식을 포함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자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7) <https://cittaslow.co.kr/63>

현대의 기술 활용을 권장하는 데 있다.²⁸⁾ 실제로 이탈리아의 슬로시티 오르비에토는 현대 기술을 이용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오르비에토는 유럽의 중세 시대의 건축물과 역사를 보여주는 성곽도시이다. 외지인이 이곳을 방문하려면 케이블카를 타야 한다.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들의 차량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줄어들었고, 개인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억제될 수 있었다.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철학은 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나아가 튼튼한 공동체에 있다. 그러면 느낌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슬로푸드 국제본부 부회장을 역임한 자코모 모올리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다.

느리게 살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있으니 바쁘게 살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느리게 살면 다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바뀐다. 가족과 이웃, 사회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 이 모든 것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면서 스스로도 잃어버리고, 가족, 이웃과 주변 자연 환경의 중요성도 상실했다.³⁰⁾

느린 삶을 사는 것의 가치는 먼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28) 슬로시티 인증 및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 일정 부분 부합해야 한다. 이 기준의 3번째 대분류인 ‘도시 삶의 질 정책’에는 현대 기술과 관련된 지침이 나와 있다. 이를테면,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양방향 서비스 개발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유선 텔레비전 방송망 구비(광섬유, 무선)’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http://cittaslow.co.kr/67>

29) 현지혜, 「슬로시티의 전개과정과 지역적 특성 : 외국과 우리나라 사례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4쪽.

30) 「느린 삶이 훨씬 유쾌하고 풍요롭다」, 『프레시안』, 2004년 5월 24일.

느림은 '삶의 여유'로 해석할 수 있다.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까지 살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이 바로 '느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다.

슬로시티 가입과 재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 6번째 대분류 '사회적 연대'는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총 72개의 소항목 중 11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³¹⁾ 사회적 복지와 통합을 추구한다. 이 소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슬로시티는 우리 모두의 행복과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의 철학과 '느림'의 의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III장에서 한국 최초 슬로시티 인증지역 중 하나인 전남 담양을 사례로 슬로시티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천되는지, 그 과정에서 슬로시티의 철학과 느림이 어떤 식으로 의미화되고, 굴절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담양 슬로시티의 기획과 문화적 실천

한국에서 슬로시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한국 슬로시티본부)의 결성에서 찾을 수 있다.³²⁾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손대현

31) ①소외계층, ②다문화 거주민, ③장애인 차별금지, ④보육 지원, ⑤청소년 생활환경, ⑥빈곤 대책, ⑦지역 자치회, ⑧다문화 통합, ⑨정치 참여, ⑩공영 주택, ⑪청소년 활동 공간 및 청소년 센터로 되어 있다. <http://cittaslow.co.kr/67>

32) 장희정, 「슬로시티 도입을 통한 대안관광 방안모색」, 『ceri 엔터테인먼트연구』 8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연구원, 2007, 100쪽; 유목화, 앞의 논문, 436쪽. 위원회는 관광학 전공인 연구자와 기업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학 교수와 여기에 소속된 연구자는 슬로시티를 ‘한국 농촌의 대안관광’으로 주목했다.³³⁾ 슬로푸드를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산업화한 이탈리아의 슬로시티에서 한국의 농촌관광개발 모델로서의 가능성에 눈여겨본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조직은 슬로시티에 부합되는 국내 지역을 물색했고, 결과적으로 전라남도의 4개군이 슬로시티로 최종 인증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남 지자체에서도 슬로시티에 대해 ‘농어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로 관심을 보이며 그 인증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담양군 창평면, 신안군 증도면, 완도군 청산면, 장흥군 유치면·장평면과 같이 군 소재의 면 단위를 슬로시티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도시 전체를 슬로시티로 인증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 면 단위로 슬로시티로 인증한 것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제시한 슬로시티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⁵⁾ 인구 5만 이하의 도시가 슬로시티로 가입될 수 있는 점³⁶⁾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담양 창평면에 위치한 ‘삼지내마을(삼지천마을)’이 슬로시티 거점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거점마을로 선정된 데에는 이 역시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 위한 현지실사 심사를 염두에 둔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그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는데, 한국의 경우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한국슬로시티본부)가 중개한다.

- 33) 한국 농촌의 대안관광으로 슬로시티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연구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종목·손대현·장희정, 앞의 논문, 22~25쪽; 장희정, 앞의 논문, 102~106쪽.
- 34) 전라남도 4개군이 슬로시티로 인증된 과정에 대해서는 유목화, 앞의 논문, 436~437쪽 참조할 것.
- 35) 차윤정, 앞의 논문, 401쪽; 조영호, 「슬로시티 도시마케팅 사례 연구-유럽 슬로시티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제43권 제1호, 한국관광산업학회, 2018, 229쪽 참조.
- 36) 담양이 슬로시티로 인증되기 전후로 인구를 살펴보면, 2006년은 50,865명, 2007년은 51,002명으로 집계되었다. 2008년 이후로 담양은 인구 5만 명을 넘지 않고 있다. <행정정보공개, 통계자료, 통계연보>, 담양군청 홈페이지 제62회통계연보 참조.

것으로 보인다.³⁷⁾ 전통경관과 생태의 보전, 지역 고유의 음식이 있는지 등이 슬로시티 인증을 받는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 담양군 창평면은 예로부터 쌀이 많이 생산되어 쌀엿과 한과로 유명하며, 대나무를 이용한 죽염 된장 등 전통음식이 발달해 있다. 특히 삼지내마을이 거점마을로 선정된 데에는 대도시와 구별되는 전통경관이 잘 보존되어서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후손들이 정착한 이 마을에는 전라남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고정주, 고재선, 고재환 고가(古家)를 비롯한 1900년대 초에 건축된 전통 가옥,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3.6km의 토석담이 잘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창평면 삼지내마을만 슬로시티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곳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삼지내마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었다.³⁸⁾ 같은 해 2009년에는 주민대표 조직인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를 출범하고 담양군과 협의해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둔 슬로시티 사업을 본격화했다.

슬로시티의 철학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전통 경관의 보존·보수 작업이 시행된다. 예컨대, 삼지내마을의 허물어진 돌담과 전통 가옥을 보수하고, 실개울을 복원한다. 삼지내마을은 실개울이 복원되면 도로 폭이 더욱 좁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공사 구간을 변경하기로 한다.³⁹⁾

37) 국제슬로시티연맹 실사단이 슬로시티 최종 인증을 앞두고 후보지로 선정된 장소를 답사해 검증한다. 원지운·김영순, 「한국 슬로시티들의 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 분석」, 『여가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여가문화학회 2009, 31쪽.

38) 슬로시티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관한 것은 최정기, 앞의 논문, 254쪽을 참조할 것.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추이 변화는 유목화, 앞의 논문, 448쪽을 참조할 것.

그러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전통 경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어 이 점 주목을 요한다. 삼지내마을의 안길이 흙길로 바뀐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는 슬로시티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담양군과 조율하고 행정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⁴⁰⁾ 前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원래 마을 안길을 황토 시멘트로 포장할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곧 무산되었다.

마을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대로 자기들로 갈라고 그래요. 마을 주민들 의견 다 무시되면서 그래서 그것이 쟁 어렵드만. 군수님 때문에 흙길을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흙길 먼지 땀에 살 수가 없어요. 차를 못 들어오게 하든가. 주차장을 외부에 만들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다니게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흙길은 흙길대로 해놓고, 차 20킬로 이하로 오잖아요. 흙길에서는 필요 없어요. (더구나) 40킬로 달려브른 먼지가 얼마나 나와분지. 그래서 초창기 때 황토 포장 있지 않습니까. 황토 시멘트 포장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한두 명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는 포장을 못 하게 한 거여. 돌담 있으니까 흙길이 맞다. 개뿔이나.⁴¹⁾

39)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슬로시티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조상필, 앞의 글, 12~14쪽; 현지혜, 앞의 논문, 30쪽.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 길을 넓히기 위해 복개공사를 추진하였다.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후 삼지내(川)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감춰진 물길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실개울을 복원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차윤정, 앞의 논문, 411~412쪽; 유목화, 앞의 논문, 438~439쪽 참조할 것.

40) “행정이 주체가 되어 선도적으로 경관 관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송태갑, 「슬로시티 지정지역의 경관관리」, 『리전인포』 통권 제127호, 전남발전연구원, 2008, 29쪽.

41) 前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 위원장(남, 60세), 2016년 8월 31일.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는 기존에 삼지내마을의 안길이 아스팔트 도로였기 때문에 전통경관과 맞게 도로를 바꾸는 문제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회는 이 마을의 안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며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있었다.⁴²⁾ 그런 와중에 이 마을의 안길이 흙길로 바뀐 주된 배경은 담양군수가 외부 전문가인 교수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즉,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마을 안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는 마을 안길에 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추진했다. 삼지내마을 주민을 제외한 외지인의 차량은 마을 입구에서 통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삼지내마을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⁴³⁾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슬로시티 가입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차량통행 제한’을 제시한 바 있다.⁴⁴⁾ 이는 슬로시티의 환경보전 철학과도 관련되며, 개인차량을 대체한 이동수단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을의 도로 폭이 좁고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기 어려웠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흙길 조성 이후 차가 다니면 흙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로 인해 삼지내마을 안길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관리자가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그것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⁴⁵⁾

42)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진지 여러 군데 가보고. 황토로 미장을 하느냐 아니면 돌을 까느냐 얘기가 많이 났는데 저렇게 결정이 났어요. 지금은 흙 포장이지요. 흙 포장인데 저것이 물이 잘 빠지고 다져지면 물이 고이지 않으면 훼손이 덜 되는데 물이 안 빠지고 비가 오고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훼손이 되는 거죠. 아쉬움이 남아요.”
前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 위원장(남, 50세), 2018년 10월 26일.

43) 차운정, 앞의 논문, 412쪽.

44) 조상필, 「국제슬로시티 가입기본 요건 및 지역발전 시사점」, 『리전인포』 통권 제116호, 전남발전연구원, 2008; 차운정, 앞의 논문, 412쪽.

45) “옛날에 (아스팔트) 포장이 돼있는데 슬로시티 지정하면서 (그) 포장 걷어버리고

더군다나 이 마을 안길이 흙길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⁴⁶⁾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면 마을 안길을 차가 달리다 보면 물웅덩이가 생긴다. 이에 담양군은 물웅덩이 보수 명목으로 이곳에 자갈을 뿌렸다. 하지만 뿌린 자갈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던 주민들은 더 넘어지기도 했다. 특히 보수된 흙길은 노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노인들은 장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이동식 카트(바퀴 달린 수레)’를 사용한다. 그런데 흙길에 자갈이 많아서 이것을 끌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바퀴가 자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⁴⁷⁾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는 흙길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민원으로 토로했다.⁴⁸⁾ 슬로시티의 철학은 무엇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슬로시티는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특히 약자와 소외

요것(흙길)을 했어. 차 통행을 못 하게 했지. 그걸 계속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4개월밖에 못 했어요. 봄에 두 달, 가을에 두 달. 교통통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맘에. 민원이. 차 탭기면 먼지 둘러쓰고 난리가 나죠. 방에 가봐. 모래가 쭈둑쭈둑 그러죠. 봄, 가을 되면, 바람 불면.” 박○○(남, 79세), 2016년 10월 2일. 특히 삼지내마을은 관광객 외에도 면사무소가 이 마을과 접해있어 창평면 주민들이 차를 타고 이 마을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삼지내마을 차량 통제와 관련해 창평면 주민들의 민원 역시 많았다고 한다. 박○○(남, 85세), 2023년 3월 22일.

- 46) 자세한 사항은 유목화, 앞의 논문, 445~446쪽을 참조할 것.
- 47) “노인들이 유모차 같은 보행기를 밀고 다니잖아요. 다닐 수가 없어. 자갈에 걸려서 나가지를 앓는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발해.” 송○○(남, 65세), 2021년 12월 16일.
- 48) “골목길이란 길은 파헤쳐 흩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로 만들고, 군데군데 파인 웅덩이 눈가림식 모래로 메우거나 굵은 자갈로 베껴 진정한 비포장 길로 만든 것도 부족해 비나 눈이 내리면 언제 마를지 모르는 진흙탕 길을 가야 한다는 게 비장애인들은 수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저에 심정을 모르실 겁니다.” <소통과 참여, 군민참여, 자유게시판>, 2013년 12월 12일, 담양군청 홈페이지 https://www.damyang.go.kr/board/view.damyang?boardId=BBS_0000029&menuCd=DOM_000000105003002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8A%AC%EB%A1%9C%EC%8B%9C%ED%8B%B0&dataSid=270034

되기 쉬운 계층들을 배려한다. 이런 점에서 슬로시티의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에 있어 슬로시티의 철학은 무엇이었는가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슬로시티와 관련된 사업은 주민들의 슬로라이프와 도시 방문객들의 슬로라이프를 위해 기획된다.⁴⁹⁾ 전자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찾아가는 슬로라이프’를 들 수 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창평면 주민들이 직접 슬로라이프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찾아가는 슬로라이프’ 프로그램이 광덕리, 일산리, 오강리, 창평리 등 창평면 소재 21개 마을회관과 창평면사무소에서 1월 3째주부터 약 4주간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슬로라이프’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천연비누와 천연 제초제를 만드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총 398명의 창평면 주민들이 참여했다. 대숲, 죽녹차, 댓잎 죽력, 황토 등 친환경 천연재료만을 이용하여 만드는 비누만들기 체험자체가 환경교육이 된다. 천연비누는 보온용기에 48시간, 냉동고에 24시간 숙성시킨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6주에서 8주간 숙성시켜야 한다. 느리고 천천히 숙성시켜야 하는 천연비누의 특성은 담양창평슬로시티에서 추구하는 느리게 사는 삶의 정신과 닮아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 슬로시티 협력사업단 유알아트, 그리고 친환경비누체험 전문교실인 에코메이드가 함께 주관했다.⁵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와 유알아트가 ‘찾아가는 슬로라이프’를 기획했고, 슬로시티의 철학인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창

49)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는 2009년 10월 문화컨설팅 업체 유알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담양 슬로시티 주요사업 성과와 변화>, 담양군, 2014, 10쪽.

50) <‘달팽이마을’신문> 2012년 2월 24일, 2쪽.

평면 소재의 마을 주민들이 느껴보는 체험교육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험은 주민참여형 슬로시티를 표방하며 교육적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참여와 실천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외부업체가 기획한 단발적인 행사나 체험으로 끝이 난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슬로라이프는 이벤트성 행사에만 그칠 뿐, 개개인의 일상과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달팽이학당’이 대표적이다. 도시 방문객들이 삼지내마을을 비롯한 창평면 주민들의 전통적 삶(느리게 사는 삶)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⁵¹⁾ 달팽이학당도 유알아트 회사에서 기획했다. 이 기획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창평의 달팽이학당은 의식주를 새롭게 가르친다. 단순히 기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 마음을 여는 법과 자연의 메시지를 듣는 법,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법 등을 가르친다.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편한 곳에서 자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기운을 먹고, 정성을 먹고, 마음도 자야 ‘지대로 의식주’다.

달팽이학당은 요리와 밥상, 민가의 민박, 생활공예가 영역이라면 영역이다. 사람이 가진 것은 구분이 잘 안되는 것이라 요리와 머물기와 공예를 함께 하는 학당들도 여럿이고 하나를 잘 하면 다른 것에도 통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지라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달팽이학당도 여럿이다.⁵²⁾

달팽이학당은 도시 방문객들이 주민들의 의식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주민들의 집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달팽이학당 주인은 ‘주민교사’라고 불린다.⁵³⁾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민교사가 단순히 도시

51) 유목화, 앞의 논문, 442~443쪽 참조.

52) 『담양창평슬로시티이야기』,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유알아트, 2012, 30쪽.

53) 유목화, 앞의 논문, 442쪽.

방문객에게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술이나 비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시 방문객은 주민교사를 통해 삶의 여유와 ‘느림’의 가치를 배우고 인간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슬로시티는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전통 가내수공업 을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⁵⁴⁾ 담양 창평의 경우, 가내수공업 방식의 산업으로 쌀엿과 한과, 장류 등이 유명하다.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와 유알아트는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이러한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막걸리, 장아찌, 전통차, 산야초/야생화 효소, 약초밥상 등의 슬로푸드와 한지공예, 꿀초, 수의 등의 슬로아트로 확대했다.⁵⁵⁾ 도시 방문객은 참가비를 내고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슬로시티사무국은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에서 주민과 도시 방문객의 만남을 중개하고 참가비로 일정수수료를 받았다.

도시방문객은 달팽이학당 외에도 슬로시티방문자센터에서 슬로푸드와 슬로아트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달팽이학당 주민교사 중 다수는 ‘슬로시티 명인(혹은 마을 명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아 단체 손님을 대상으로 슬로시티방문자센터에서 수업했다.⁵⁶⁾ 문제는 이것이 소득창출 사업에 치우쳐 ‘생산성’, ‘효율성’에 입각한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점이다. 다음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동력으로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는 것 때문에 명인과 명인, 사무국과 명인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떤 명인은 1, 2명 하면 나는 못해 해버려. 어떤 명인은 받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여기 전화 오는 사람들이 1, 2명도 있고, 300명도

54) 오동훈, 홍정의, 「한국형 슬로시티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277쪽 참조.

55) 유목화, 앞의 논문, 442~443쪽.

56) ‘슬로시티 명인’은 국가가 지정한 명인과 다르다. 유알아트는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에 착안해 ‘슬로시티 명인’을 기획했다. 유목화, 앞의 논문, 443쪽.

있어요. 누구나 다 300명을 받고 싶겠죠 떨어진 게 많으니까. 한두 명은 정말 출장비도 안 나오잖아요. 한두 명을 받아야 300명을 받는다 이런 원칙도 없고 하니까 1, 2명 안 받아버려요. 여기 사무국에서 한두 명 쳐 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어떤 명인은 한두 명은 안 받는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블고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분들도 있고 1, 2명을 연락을 안 줬다. 사무국에서 연락을 안 줬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⁵⁷⁾

前 사무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방문객이 한두 명만 와도 수업을 하겠다는 명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명인도 있었다. 그리하여 사무국은 일률적으로 한두 명의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 사무국은 운영비 마련을 목적으로 체험비에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 한두 명은 운영자 관점에서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험 운영에 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명인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 소수의 개인보다 단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슬로시티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축소·중단되면서 슬로시티사무국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자구책을 선택했다. 예를 들면, 슬로시티 사무국장은 명인 대신 직접 체험강사로 활동하며 참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과나 쌀강정 중목을 선택한 것이었다.⁵⁸⁾ 그런가 하면, 슬로시티사무국은 명인들의 소득 증대와 운영비 마련을 위해 달팽이가게를 운영했다. 달팽이가게는 슬로시티 명인들이 만든 물품을 팔고 있었는데, 판매 수수료가 너무 높아 감당이 안 되는 명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7) 前 슬로시티사무국 사무국장(여, 48세), 2016년 2월 24일. 실제로 1, 2인 예약은 취소하고, 최소 5인 이상만 예약을 잡는다는 명인도 있었다. 이○○(여, 50년생), 2019년 10월 11일.

58) 유목화, 앞의 논문, 450~451쪽.

일종의 가내수공업에 가까운 소비자 직거래를 하는데 유통을 하게 된다면 그 폭을 감안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금액 낮게 마진 많이 준 사람것만 팔겠다. 그때 당시에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마진 책정이 되가지고 싸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는. 그때 당시에 판단 착오로 내 생각에 (사무국의) 판단착오 같애요. 아무리 금액을 저기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홍보 효과로 해줘야 하는데 (달팽이 가게)직원들 급여도 안 나오고 (사무국에서)급여 줘야 하니까 마진을 많이 준 사람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서 납품하게끔 하고 자연 스럽게 우리 같은 데는 밀려나가게 되고.⁵⁹⁾

슬로시티 운동은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대한 반발,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속도와 상품의 표준화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근대적 삶에 대한 성찰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당장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큰 업체의 명인 제품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요컨대 명인 명품화 사업은 재능과 기술이 있는 주민을 명인으로 육성하고, 그들의 상품을 명품화하려는 의도로 기획됐지만, 결과적으로 슬로시티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상실되었다.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키안티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산업화의 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⁶¹⁾ 반면 담양 창평 슬로시티에서 보이는 사업 운영방식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산업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무국에서 직접 체험한 것은) 의미 없는 거죠. 어디서든 그건

59) 슬로시티 명인(여, 나이 밝히지 않음), 2019년 12월 20일.

60) “○○는 괜찮아. 구조가. 원가 자체가 더 적더라고. 원가 산출을 보면 적더라고. 우리는 원가 자체가 55%라면 거기는 35% 정도 된다 하면 할만하다는 이야기지.” 김○○(여, 52), 2019년 12월 13일.

61) 신종목·손대현·장희정, 앞의 논문, 21쪽.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라는 한 명인의 말은, 패스트푸드점의 운영 원리가 이곳에서 일정 부분 유사하게 작동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IV. 간극의 발생과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의 슬로시티 수용 과정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실천하기보다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지역들은 자생력을 갖추어 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⁶²⁾ 게다가 지자체가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군에서도 지방비를 50:50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관(官) 주도의 슬로시티 사업이 기획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의 재정지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없이 지자체의 요청으로 이뤄졌다.⁶³⁾ 그리하여 슬로시티 사업 기획은 담양군과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되어있지만, 대부분 외부전문가의 기획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지방 행정기관과 주민조직이 기획하기에는 문화적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담양군은 슬로시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급속도로 추진했다.⁶⁴⁾ 그 결과 슬로시티의 철학을 접목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었다. 특히 슬로시티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은 전통경관의 보존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중점을 뒀다 한다.

62) 한국관광개발원, 위의 글, 174쪽 참조.

63) 한국관광개발원, 앞의 글, 174쪽.

64) 유목화, 앞의 논문, 459쪽 참조.

하지만 삼지내마을의 전통경관을 최대한 과거에 가깝게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 삼지내마을의 기존 도로는 아스팔트 도로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혼한 일상의 도로다. 이러한 도로를 변경할 때에는 그 용도를 생각하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지내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기 때문이다. 담양군이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마을 안길을 흙길로 바꿨는데, 우리는 슬로시티의 ‘느림’의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두르면 놓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느림’을 ‘전통’으로 의미화하거나 ‘느림’ 또는 ‘전통’의 외형적 형태에만 치중한 슬로시티 사업은 느림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주민들의 ‘슬로라이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은 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수박 겉 핥기’식 모습이 잘 드러난다.⁶⁵⁾ 도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슬로라이프’ 역시 주민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보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화를 통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 달성에 급급했다. 슬로시티 사무국은 슬로시티 사업의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담양군의 소극적인 관심과 대책 미흡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달팽이가 게 직원 월급을 슬로시티사무국에 일임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 슬로시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애초 무리였다. 삼지내마을을 비롯한 창평면 주민들은 ‘슬로시티’라는 개념이 없었고 슬로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삼지내마을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고, 창평면 주민들의 슬로라이프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이벤트성 행사를 체험하는 정도

65) 일례로 담양군은 2012년 슬로시티의 사업성파를 “진정한 슬로시티로 발전하는 주민 의식 개혁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담양 슬로시티 주요사업 성과와 변화>, 담양군, 2014, 4쪽.

였기 때문이다. 도시 방문객을 위한 슬로라이프는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됐으며, 극소수의 주민만 참여했다. 외부전문가는 자신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이 마을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식은 주민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전통'과 '느림'을 접목한 슬로시티 사업은 결국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슬로시티의 기획과 문화적 실천은 필연적으로 슬로시티의 철학과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은 슬로시티의 범위 설정 문제로 주민참여와 실천 영역에서도 운영자와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빚게 했다.⁶⁶⁾ 슬로시티의 실제 가입 주체는 담양군이고, 지정범위는 창평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삼지내마을의 전통경관은 슬로시티 인증 획득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삼지내마을에 집중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마을 주민들은 삼지내마을만 슬로시티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람들이 창평 슬로시티를 삼지내마을이 중심이고 전체 군에서는 창평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더 크게 보면 담양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담양군수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으로 봐야되는데 여기 삼지내마을 땀에 났다. 차원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기 삼지내마을만 슬로시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하는 집행부들은 삼지내마을이 중심이고 창평면으로 크게 봐야 된다. 우리가 담양군까지는 아우르기 힘드니까. 여기로 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창평면을 홍보를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집행부는

66) 차운정, 앞의 논문, 401쪽; 최정기, 앞의 논문, 253쪽. 차운정의 논문에서도 삼지내마을 주민들은 슬로시티를 자신들의 마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없어진 '담양창평슬로시티 홈페이지'에 '담양창평슬로시티삼지내마을'로 소개되었고,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 발족 당시 주로 삼지내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임하고 있고요.⁶⁷⁾

담양군은 창평면 전체를 슬로시티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후임 사무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지내마을 중심으로 슬로시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슬로시티의 취지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창평 주민들은 모두 슬로시티의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창평 전체 슬로시티가 원래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담길 삼지내마을만 슬로시티예요. 애초에 지정할 때 창평 삼지내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이 된 건데 담양군이 확대해석한 거죠. 우선 창평 슬로시티라고 한 거죠. 주민들도 창평 전체가 슬로시티라고 생각한 거죠. 면밀하게 사업을 이해하고 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디가 슬로시티냐 그러면 애초에 지정된 곳이 돌담길 있는 데가 삼지내마을로 지정된 거예요. 주체는 삼지내마을 주민이에요. 세팅을 할 때 삼지내마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세팅하면 삼지내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슬로시티 마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세팅을 창평 슬로시티라고 해버리니까 창평 주민 전체가 슬로시티 주체가 된 거예요. 여기 예산이 들어오거나 여기서 일어나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자로 생각한 거예요. 다들. 애초에 세팅을 잘못함으로써 갈등을 유발시킨 거예요. 원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⁶⁸⁾

담양 슬로시티의 범위와 거점마을 선정은 슬로시티 사업 전반의 기획과 운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슬로시티관련 사업은 이원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된다. 하나는 거점마을인 삼지내마을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기반 구축 및 인프라

67) 前 슬로시티사무국 사무국장(여, 48세), 2016년 2월 24일.

68) 슬로시티사무국 사무국장(남, 59세), 2022년 1월 6일.

라 조성사업을 기획한 것, 다른 하나는 창평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와 실천이다. 슬로시티의 사업비는 주로 하드웨어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삼지내마을의 경관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삼지내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민박을 운영하거나 쌀엿을 파는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했다.⁶⁹⁾ 그래서 다른 마을의 이장들은 삼지내마을만 하드웨어가 집중적으로 구축된 것에 관해 불만을 표현했다.⁷⁰⁾ 삼지내마을을 제외한 창평면에서 경제적 혜택을 본 이들은 주로 달팽이학당의 주민교사와 슬로시티 명인에 한정되었다. 삼지내마을 일부 주민들은 ‘슬로시티 명인’이 이 마을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¹⁾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을 안길이 흙길로 변하면서 삼지내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삼지내마을의 일부 주민들만이 경제적 혜택이 있었을 뿐, 오히려 주민 대다수는 수혜자보다 피해자에 가까웠다.⁷²⁾ 이처럼 담양 슬로시티의 범위와 거점마을의 선정은 삼지내마을 안팎의 주민들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슬로시티의 중요한 철학인 ‘공동체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69) 유목화, 앞의 논문, 452~453쪽 참조.

70) “창평 전체가 혜택을 못 받고 맨날 여기만 혜택을 받아서, 외부 다른 면리 이장들은 불만이 많죠. 슬로시티 있어봤자 우리 마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중략)… 돈을 다 갖다가 저렇게 예쁘게 꾸며주니까 저기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민박 사업도 하게 하고 찻집도 하게 하고, 우리도 창평인데 슬로시티 왜 저기에만 투자를 하나 그렇게 보이겠죠.” 前 슬로시티사무국 사무국장(여, 48세), 2016년 7월 21일.

71) “슬로시티 모든 자본금은 이쪽으로 마을로 와야 한다는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명인들도 여기 내에서만 뽑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시고.” 前 슬로시티사무국 사무국장(여, 48세), 2016년 10월 3일.

72) 슬로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지내마을의 하드웨어 구축은 삼지내마을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기 통신 케이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원(田園)을 비롯한 농촌 미관과 전통경관을 가리지 않아 이 마을이 더 깨끗하고 보기 좋다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삼지내 복원 이후 다시 육안으로 물길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삼지내마을 주민들이 슬로시티 인증 이후 삶의 질이 더욱 저하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을 보면, 수혜자보다 피해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유목화, 앞의 논문, 446쪽 참조.

그런 까닭 때문인지 담양군은 2018년 재인증을 앞두고 유보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첫 번째 이유는 슬로시티 사업이 상업화되면서 주민갈등이 발생해 슬로시티의 본디 철학을 훼손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민실천운동에 대한 사례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⁷³⁾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슬로시티를 도입한 출발점에서부터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담양 행정당국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도 컸다고 생각된다.

여하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담양은 2019년 3월 군 전역화로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다.⁷⁴⁾ 이듬해인 2020년 6월에는 삼지내마을을 비롯해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 금성면 가라실마을, 봉산면 방축마을이 슬로시티 거점마을로 선정됐다. 슬로시티 인증범위가 담양 창평면에서 담양군으로 확대되면서 거점마을도 확대됐다.

주목할 것은 거점마을 선정 심사 시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했다는 점이다. 슬로시티 마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마을 구성원의 50% 이상이 자필 서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⁷⁵⁾ 삼지내마을과 창평면 주민들이 슬로시티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주민참여형으로 슬로시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긴 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롭게 거점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은 담양 창평면이 처음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을 때의 분위기와 달라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3) 최정기, 앞의 논문, 250쪽.

74) 한국슬로시티본부는 2016년 4월 개최된 한국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국 슬로시티 인증범위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영호, 앞의 논문, 230쪽.
이에 담양군도 인증범위를 담양 창평면에서 담양군으로 확대했다.

75) <슬로시티 마을 지정계획(안)>, 담양군, 2020, 7~14쪽.

예컨대 생오지마을의 경우 이 마을의 자연환경 조건이 슬로시티의 요건에 부합된다 싶어 주민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하여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의 고유한 자산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슬로시티 거점마을로 선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린벨트와 같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마을 고유의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점에서 슬로시티 마을 지정 신청은 주민들의 반대 없이 순조롭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⁶⁾ 이를 달리 말하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담양 슬로시티의 거점마을로 선정된 해당 마을 이장은 마을 특성에 맞게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광’에만 치중하기보다 마을을 그대로 가꾸다 보면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점이다. 이것은 슬로시티 관련 교육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⁷⁷⁾ 한국슬로시티본부는 담양 슬로시티 거점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시행했다.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에 몰두한 결과 여러 역기능이 나타나 시정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교육이 적어도 이 마을 이장에게는 뇌리에 남는 계기가 되었다.

-
- 76) “우리 마을은 일단 산림이 있잖아요. 숲속에 움썹히 들어있다 슬로시티 맞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과 회의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우리 마을 자산이 무엇인지 자산 찾기도 했었고. …(중략)…어떤 토지에 대한 제약 그린벨트처럼 있는 것은 아니고 선정되면 옛날 전통이나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꾸고 일고 가는 과정이다 해서 어느 하나 반대 없이 (신청하게 됐어요.)” 생오지마을 前 이장(남, 53), 2023년 1월 10일.
- 77) “슬로마을이 교육받을 때는 관광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나름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천천히, 슬로건이 그러더라고. …(중략)…꼭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정원 다른 정원보다 특이하게. 관광지 포토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정말 특이한 마을?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와서 쉬었다 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올 수 있게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것은.” 방축마을 이장(남, 57), 2022년 12월 30일.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점이다. 특히 가라실마을의 경우 구성원이 거의 70~90대로 초고령화 마을이다. 이 마을 이장은 주민 건강과 더불어 마을의 미관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⁷⁸⁾ 담양군 창평면이 처음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을 때 주민들 사이에서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을 기대했던 분위기와도 사뭇 달랐다.⁷⁹⁾ 물론 이는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특정 주민에게서 발견된 변화라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둔 슬로시티의 패러다임은 종전과 다르게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농촌관광에 직격탄을 맞은 시기와 겹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슬로시티방문자센터와 달팽이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소득 사업에 치중한 슬로시티 사업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특히 슬로시티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새마을운동 이래로 관 주도의 하향식 개발정책에 익숙해진 농촌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담양군은 슬로시티 거점마을로 선정된 이후 마을당 오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방축마을은 저수지를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과 저수지 주변 경관을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했고, 나머지 마을에서는 꽃길을 조성하는데 사용했다.⁸⁰⁾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없었다. 이에 대해 가라실마

78) “우리 주민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마을 환경을 바꿀려고 해요. 깨끗하게 가꾸고 옛날에 선조님들이 지켜온 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돌담 같은 것도 보기 좋게 하고, 꽃길도 가꾸고. 노인분들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가라실마을 이장(남, 77), 2023년 1월 13일.

79) 유목화, 앞의 논문, 439~440쪽 참조.

80) 슬로시티사무국 사무국장(남, 59세), 2022년 9월 2일.

을 이장은 마을의 미관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특히 이 마을은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 구성의 한계로 행정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지금 당장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 노인들이고. 그게 젤 애로사항이네요. 슬로시티 사업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갈려면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보내주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는 인력도 없고 힘들더라고 힘들어. 지난달에 전국 슬로시티(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님이 오셨어. 교육 3일을 받았어. 그 당시 예산 있어야 믿을 하지. **뺨 나 예산이 없으니 신청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유지를 할려고 하면 필히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되겠다. …(중략)… 저희 지역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가입을 해 있는디 공히 다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여 지금.**⁸¹⁾

주민들이 신청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예산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탓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담양뿐만 아니라 슬로시티로 인증된 각 시·군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은 실제로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국가적 의제로 발의되어 주목된다.⁸²⁾ 슬로시티 운동이 국내에 정착하려면 관련 제도와

81) 가라실마을 이장(남, 77), 2023년 1월 13일.

82) 이 발의안은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민홍철 의원, 슬로시티 행정 재정지원 ‘슬로시티 조성법’발의」, 『경남도민일보』, 2022년 12월 12일. 2022년 12월 12일에 제안된 이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주목되는 것은 법률안 제1조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나와 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을 함축하고 있다. 법률안 제6조, 제7조도 주목할 만하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슬로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인증된 슬로시티에 재정지원을 했었다. 앞으로 이 조항에

예산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민홍철 국회의원 등 19명이 정책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슬로시티 운동이 본연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실천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서 국내에 도입된 슬로시티는 현재 과도기에 진입했다고 보인다.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슬로시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마을 및 지역 고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삼지내마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흙길 변경’이 조만간 해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말, 삼지내마을에서 안길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마을 총회가 열렸다. 담양군은 마을 안길 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⁸³⁾ 담양군은 슬로시티 인증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와 주민갈등을 경험해왔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일부분 보이는 모습에서 긍정적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천천히 서두르는’ 것과 같이 느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색해야 할 때다.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슬로시티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2D1Z2E0Z6G1W4K1O6X1Q7T4Q4A4

83) 삼지내마을 이장(남, 67세). 2023년 3월 2일.

V. 나가며 : 과제와 전망

이 글은 담양 슬로시티를 사례로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느낌이 어떠한 맥락에서 기획되고 실천되는지, 그 과정에서 왜 간극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슬로시티 운동의 철학과 '느림'의 의미가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 패러다임이 종전과 다르게 일부분 변화되는 모습을 포착하여 국내에 도입된 슬로시티가 과도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전망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인구 5만 명 이하 도시만 슬로시티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한국은 유럽과 달리 먼 단위로 슬로시티로 인증된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담양 창평이 슬로시티 인증에 필요한 현지실사를 위해 거점마을로 선정된 사실을 포착하여 이것이 슬로시티 사업의 기획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그 과정에서 슬로시티의 철학과 느낌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굴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슬로시티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은 삼지내마을에 국한될 정도로 이곳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슬로시티의 철학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을 보존하고 보수해 왔다. 이는 전통경관을 보존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전통경관 조성사업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삼지내마을 안길을 흙길로 교체한 사례이다. 흥미로운 것은 슬로시티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차량통행 제한'인데, 이 흙길로 인해 차량통행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원래 차량통행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했다. 그러나 삼지내마을에서는 차량통행 제한을 유도하여 흙길로 인한 먼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차량통행 제한은 예산 문제로 한시적으로 해왔을 뿐, 이후 흙길 보수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슬로시티의 중요한

철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전통'이라는 외형적 형태에만 치중했던 슬로시티 사업과 그 실행은 필연적으로 슬로시티의 철학과 간극이 발생했다. 이는 주민참여와 실천의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창평면 주민들이 경험한 슬로라이프는 일상생활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외부전문가가 기획한 이벤트성 행사를 체험하고 동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도시 방문객들은 주민들의 전통적 삶을 체험함으로써 '느림'의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도시 방문객들의 슬로라이프는 소득사업에 치중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가내수공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들이 만든 상품을 명품화하려고 했던 당초 의도는 빗나갔다.

이렇듯 담양 슬로시티의 기획과 실천에서 '성숙', '질', '깊이와 품위'는 찾기 어려웠다. 지역 고유의 자원이 풍부한데도 슬로시티의 철학과 느림의 가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느림'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느림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느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느림을 겨냥하지 않으며, 느림을 추구하지 않을 때 느림은 절로 따라온다. '천천히 걷기', '권태 즐기기', '기다리기'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속도 늦추기, 곧 느림의 확보를 너무 의도하고 있어서 더욱 속도의 의미와 상황에 몰입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느림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들이 내놓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비밀을 감출 수도 없는 것 아닌가?⁸⁴⁾

김용석은 느림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주장했다. 느림을 너무 의식하면 그 본질적 인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84) 김용석, 『깊이와 넓이 4막 16장』, 휴머니스트, 2002, 313쪽.

담양 슬로시티 사업에서 느림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슬로시티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곧 ‘느림’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슬로시티 인증을 위한 기본 요건’과 맞물려 슬로시티의 중요한 철학인 ‘공동체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삼지내마을을 중심으로 하드웨어가 구축되면서 이곳에서 민박을 운영하거나 쌀엿을 파는 주민교사 또는 슬로시티 명인들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이는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었다. 경제적 혜택이 크게 없는 창평면 삼지내마을 주민들과 다른 마을의 이장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는 공동체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면 단위로 지정된 슬로시티는 군 전역화에 따라 거점 마을이 확대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의 패러다임이 종전과 달리 일부만 변화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슬로시티 사업에서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점검하여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슬로시티가 한국 사회에 도입된 지 15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국내 슬로시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슬로시티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향후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가 나와야 한다. 특히 슬로시티 인증 시기,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와 지원 여부 등 다양한 유형의 슬로시티 사례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슬로시티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정 부분 유의미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경남도민일보』, 2022년 12월 12일.
『농민신문』, 2011년 3월 28일.
『뉴시스』, 2013년 7월 4일, 2013년 7월 7일, 2013년 7월 16일.
『서울경제』, 2013년 7월 8일.
『세계일보』, 2013년 7월 8일.
『연합뉴스』, 2013년 7월 9일.
『프레시안』, 2004년 5월 24일.
『담양창평슬로시티이야기』, 담양창평슬로시티위원회·유알아트, 2012.
<달팽이마을 신문>, 2012년 2월 24일.
<담양 슬로시티 주요사업 성과와 변화>, 담양군, 2014.
<슬로시티 마을 지정계획(안)>, 담양군, 2020.
국제슬로시티연맹, <https://www.cittaslow.org>
담양군청, <https://www.damyang.go.kr/index.damyang>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한국슬로시티본부, <http://cittaslow.co.kr>

2. 논저

- 김준, 「슬로시티 정책의 성찰과 개선방안」, 광주전남연구원, 2018.
김양수, 「음식문화의 보편화 그리고 슬로푸드 운동」, 『철학과 문화』 제2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11.
김용석, 『깊이와 넓이 4막 16장』, 휴머니스트, 2002.
성보현·조록환, 「관광 브랜드 인지, 이미지, 태도 간 영향관계 분석-담양 창평 슬로시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4,
손대현·장희정, 『슬로시티에 취하다』, 조선엔북, 2012.

- 송태갑, 「슬로시티 지정지역의 경관관리」, 『리전인포』 통권 제127호, 전남발전연구원, 2008.
- 신종목·손대현·장희정, 「슬로우 무브먼트 컨셉 도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17권,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5.
- 오동훈, 홍정의, 「한국형 슬로시티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 유목화, 「슬로시티의 도입에 따른 농촌사회와 주민들 삶의 변화-담양 창평면 삼지내마을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76집, 비교민속학회, 2022.
- 원지윤·김영순, 「한국 슬로시티들의 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 분석」, 『여가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여가문화학회 2009.
- 장희정, 「슬로시티 도입을 통한 대안관광 방안모색」, 『ceri 엔터테인먼트연구』 8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연구원, 2007.
- 조상필, 「국제슬로시티 가입기본 요건 및 지역발전 시사점」, 『리전인포』 통권 제116호, 전남발전연구원, 2008.
- 조영호, 「슬로시티 도시마케팅 사례 연구-유럽 슬로시티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제43권 제1호, 한국관광산업학회, 2018.
- 차윤정, 「로컬 서사를 통해 본 차이의 가능성-삼지내마을의 슬로시티 인증과 문화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최정기, 「대안적 사회구성과 슬로시티(Slow City)운동 비판-담양군 창평면의 슬로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9.
- 한국관광개발원, 「슬로시티관광자원화·생태관광10대모델 사업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 현지혜, 「슬로시티의 전개과정과 지역적 특성 : 외국과 우리나라 사례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A GAP BETWEEN PHILOSOPHY AND CULTURAL PRACTICE
OF SLOW CITY MOVEMENT -FOCUSING ON THE CASE OF
DAMYANG SLOW CITY-

YOU MOKHWA (YOU, MOK HWA)

It has been over 15 years since slow city was introduced i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cademic researches on the problems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 slow city project for the vitalization of touris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omestic slow cities. Recently, the government officials proposed a bill related to slow city for diagnosing problems of domestic slow cities and establishing the relevant measures.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various academic surveys and researches for carrying out domestic slow city policies and projects because it is connected to the issue for enriching the internal stability of slow city introduced in Korea.

Considering this, this thesis presented the future direction of domestic slow cities through the critical consideration of slow city project. Through interviews with various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Damyang Slow City, this study examined which context the slow city project is planned, how it is practiced, and the reasons why the gap occurs in the process. Especially, this study considered what was missing in the slow city project of Damyang-gun focusing on the 'vitalization of tourism' engaged in the

evaluation requirements for the certification of slow city, and as a result, what kind of gap was shown. The local governments certified as slow city should sufficiently think about how to practice value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slowness', instead of using 'slowness' as a means when carrying out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Key Words : Slow City Movement, Slow Food, Philosophy of Slow City Movement, Slowness, Cultural Practice, Gap, Damyang Slow City, Slow City Project, Slow City Policy, Paradigm